

■ 줌인 동남아시아 ■
Zoom-in Southeast Asia



란나왕국의 흔적을 찾아서 IV:
왓푸민 사원에서 만난 란나

Tracing Lanna Kingdom IV: Lanna in Wat Phumin

배수경*

Soo Kyung BAE



<그림 1>
왓푸민사원 전경
©M_Elephant

왓푸민 사원은 짱왓(道) 난¹⁾, 암퍼 므영(市) 난의 중앙에 위치한
난을 대표하는 사원이다. 난왕조 연대기에 따르면 왕실 사원이었던

* 부산외국어대학교 태국어과 강사, thai@iseas.kr.

1) 난은 오랜 역사를 간직한 독립적인 왕조를 유지하던 곳으로 란나 왕조와 란쌍 왕조(현재의 라오스)를 연결해주던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다. 새로운 도시라는 치앙마이, 황금의 도시라는 치앙통(현재의 루앙프라방)의 중간이란 의미에서 치앙끄랑(Chiang Klang)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미얀마의 침략을 받았다가 라마 5세 때에 들어 태국의 일부로 통합됐다. 현재의 난은 산들에 둘러싸인 조용한 도시로 라오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태국 북부의 행정구역 중 하나다. 지형적으로 도이 푸카(Doi Phukha), 도이로(Doi Lo), 도이 케(Doi Khe) 같은 2천 미터가 넘는 산들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 라오스 영향을 받은 사원과 수공예품이 발달해 있기도 하다. 태국관광청 제공, <http://www.tatsel.or.kr/home/info.php?mid=134&treec=66>

왓 푸민 사원은 짜오 켈따부트 프롬민(Chao Chettabut Phrom Min)왕 때인 1596년에 건설되었다. 그 뒤 1704년 버마군의 공격에 의해 불상과 사원이 상당부분 훼손되었다가 1857년 난의 7번째 왕인 짜오 아난파와 라릿티멧 왕이 즉위하면서 난의 사원을 적극적으로 개·보수 하였다. 이 때 왓푸민도 보수가 시작되어 1875년까지 계속 되었다.



<그림 2>
나가의 등을 타고 앉은
사원의 모습
©M_Elephant

왓푸민 사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태국의 일반적인 사원과 다른 특별함이 있다. 그 첫 번째가 태국 사원의 건축양식과 다르게 십자형 구조로 되어 있다. 한 건물 안에 위한²⁾(viharn)과 우보솿(ubosot)이 같이 자리하고 있는데 동서축으로 위한(viharn), 남북축으로 우보솿(붓, ubosot)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두 마리의 나가가 동쪽을 향하고 있으며 서쪽으로 나가의 꼬리가 길게 뻗어 있어서 전체적인 모양이 이 나가의 등을 타고 사원이 앉은 모습이다.



<그림 3>
절 내부의 불상
©M_Elephant

2) 일반적으로 태국의 사원은 승려들이 계를 받는 붓(bot), 혹은 우보솿(ubosot), 불자들이 예배를 올리고 회합을 위한(viharn), 불경을 보관하는 문둑(mondop) 그리고 승려들의 거주 공간인 꾸띠(kuti)로 구분을 짓는다.

타이르³⁾양식의 특징을 그대로 살린 사원의 내부는 코끼리 문양으로 아름답게 채색된 천장을 비롯하여 12개의 티크 기둥이 사원 내부를 받치고 있다. 법당의 중앙에는 네 분의 부처님이 사방으로 나 있는 문 쪽을 향해 앉아 계시는데 구루손불(Kakusandha), 구나함모니불(Konagamana), 가섭불(Kassapa), 그리고 석가모니불(Gautama)이 그것이다. 두 번째로는 역사적인 가치는 물론이고 미술적인 가치도 아주 높은 아름다운 벽화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동쪽과 북쪽 벽은 본생경(붓다의 전생) 이야기, 서쪽과 남쪽 벽은 난 지역의 불교설화로 내려오는 칸타꾸만 이야기(Khattana Kumara Jataka), 그리고 과거 난 지역사람들의 일상 생활상을 묘사한 벽화로 가득 메워져 있다. 또한 프랑스 군대와 서양신부를 그린 벽화도 있어서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짐작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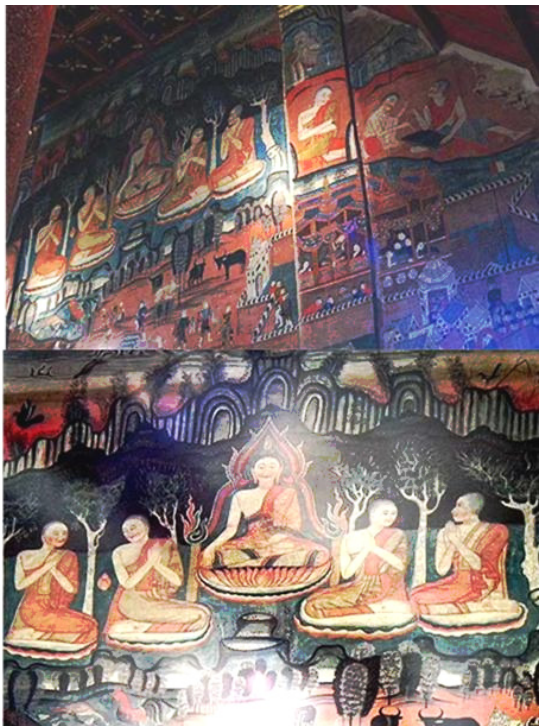
이 글은 왓 푸민 사원의 벽화를 분석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을 몇 가지 소개하여 왓푸민 사원을 좀 더 전문적으로 알리는 일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I. 본생경이야기

동쪽과 남쪽 벽화의 상단에는 부처님이 제자들을 앉히시고 설법을 행하시는 장면을 그대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부처님이 항마촉지인⁴⁾을 취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서쪽 벽화의 상단에도 역시 부처님과 관련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 슬픔이 그대로 묻어난다. 이로 보아서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는 장면을 그려낸 것으로 짐작된다.

³⁾ 1. 다이족(중국어 간체: 傣族, 타이어: ไท, 영어: Dai people, 태족)은 중국의 소수민족의 하나로, 2000년 제5차 전국인구조사 통계에서는 인구는 약 1,158,989명으로 중국정부 가 공인하는 56개의 민족 중에서 19번째로 많으며, 100만명이 넘는 마지막 소수민족이기도 하다. 대부분 윈난의 시샹반나 다이족 자치주와 더홍 다이족 징포족 자치주에 살고 있다. 라오스와 베트남, 타이, 미얀마에까지 걸쳐 분포하며, 타이루, 타이 등으로 불리고 있다. <http://ko.wikipedia.org> 제공, 2. 특히 태국내에서는 치앙마이, 치앙라이, 람퐁, 매헝썬, 파야오, 람뽕, 프래, 난 등 전통적인 라나왕국의 영토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⁴⁾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BhumisParsa-mudra, 부처가 깨달음에 이르는 순간을 상징하는 수인, 항마인, 촉지인, 지지인 이라고도 한다. 석가모니가 보리수 아래에 앉아 성도(成道)할 때 악귀의 유혹을 물리친 중인으로 지신을 불려 자신의 깨달음을 증명하였다는 내용에서 유래되었다.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여 결가부좌한 다리 가운데에 놓고 오른손은 무릎 밑으로 늘어뜨리면서 다섯 손가락을 편 모양이다. 이 수인은 반드시 결가부좌한 좌상만이 취하는 것으로 입상이나 의상(倚像)에서는 볼 수 없다.



<그림 4>
부처님이 설법하고 계시는 장면
©M_Elephant



<그림 5>
부처님의 열반 장면
©M_Elephant

II. 난 지역과 교류 하였던 외국인

부처님 열반에 드시는 장면과 바로 맞닿아 있는 서쪽 벽화 속에 실물과 거의 비슷한 크기의 빨간 망토를 입은 외국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짐작하건데 서양 선교사가 아닌가 한다.



<그림 6> 벽화 속 서양 선교사
©M_Elephant



<그림 7>
서양인이 타고 온 증기선과 서양인들
©M_Elephant

그리고 이 벽화에는 여러 명의 서양인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배의 모양과 등장하는 사람들의 복장을 보면 19세기 유럽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당시 난에는 여러 국적의 외국인들이 상주하고 있었다고 한다. 특히 이 사원을 보수할 당시 프랑스는 라오스를 식민 지배하기 위해 활발한 교역을 하고 있었을 시기였기 때문에 이 벽화를 그렸던 화공은 직접 서양인들을 보고 그렸던 사실화에 가까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림 속의 대부분의 서양인들은 비교적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비해 채색을 적게 하거나 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그림에서 받는 아름다움과 사실상 거리가 멀게 느껴

진다. 어쩌면 화공을 비롯한 이 시기 난에 살고 있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음직한 서양인들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였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 외에도 중국기를 단 화물선과 중국인의 모습도 보이고 있다.

Ⅲ. 소수 종족

서쪽 벽화에는 물건을 팔기위해 도시로 들어오고 있는 한 무리의 낫선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의 복색과 검은 개를 그려 넣은 것을 보면 그들이 어떤 종족인 지 짐작할 수 있다.

난이 성립되기 이전에 난 지역은 루와족의 영토였다. 치앙마이가 번성하여 난을 합병할 때 루와족은 기르던 개를 끌고 성문으로 들어 왔다는 기록이 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루와족을 화공이 상징화하여 그렸을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짐작되는 것은 세 번째 여인의 치마는 일반적으로 난 지역의 여성들이 입는 물결무늬 치마이지만 이 여인이 울러 맨 대나무함의 형태로 보아 이는 카무족을 형상화 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시기에 난에서는 여러 소수 종족과 활발한 교류를 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두 명의 전통복장을 한 카렌족 남자도 보인다. 당시 카렌족 남자들은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었는데 이러한 복장은 이미 80여년전부터 입지 않는다.



<그림 8> 난과 교류하였던 소수종족 ©M_Elephant

첫 번째 벽화를 자세히 보면 앞선 두 남자들은 옷이라기보다는 대충 가리기만 했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허술한 옷매무시와 함께 털이 수북한 다리는 온통 문신투성이다. 그리고 그 당시 란나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던 갑상선을 부각 시킨 점은 벽화를 보수했던 시기와 또 한 번 더 맞아 떨어진다. 이 당시 소수종족들은 주로 나무 집을 저다 날라 주고 먹을 것을 얻거나 필요한 물품을 받아가는 형태의 교역이었다고 한다.

IV. 그, 그녀

사원의 벽화는 대부분 본생담의 칸타꾸만 이야기에 근거하여 난 주민들의 생활상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그렸다는 점에서 미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사료로써도 상당한 가치가 있다.



<그림 9>
부둣가의 여자와 4명의 남자들1
©M_Elephant

이 한 장으로 과거 난 지역의 젊은이들을 설명할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8명의 여자와 4명의 남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 그림은 그 당시 타이르족들의 무늬인 물결무늬 파썬(phasin, sarong)을 입은 여성들은 물론이고, 보기에 부담스러워 보이는 귀걸이를 한 남자들은 허리부터 다리까지 문신을 하고 있다. 이 그림으로 보아 당시 난 지역에는 중국의 시황판나에서 이주한 타이르족들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었음은

물론이고 타이르족들의 복식문화가 난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남자들의 머리 모양이나 여자들의 머리모양을 비롯하여 부돗가 주변에서 외국인들과 교역을 하면서 영향을 받은 듯한 차림새도 눈여겨 볼만하다. 예를 들면 왼쪽 4명의 남자들 중 한명이 입고 있는 붉은 색 상의는 서양의 복식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이 그림에서 필자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8명의 여성들의 시선이 단 한군데도 같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4명의 남자들은 한 여성에게 고정되어 있다. 그림을 좀 더 확대해 보면 더 재미있는 상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0>
부돗가의 여자와 남자들2
©M_Elephant

그리고 마주보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두 남녀의 시선과 혼자 떨어져서 짐을 지고 있는 여자의 시선도 매우 흥미롭다. 거의 수평 구도에서 그려 낸 세 남녀의 시선 처리가 우연이었을까? 또한 이 홀로 떨어져 있는 여자의 상의는 다른 여자들과 다르게 가슴 부분만 가리고 앞에서 묶은 것으로 그려져 있다.



<그림 11>부둣가의 여자와 남자들3 ©M_Elephant

V. 로맨틱 란나

1999년 2월 타이항공의 기내잡지인 SAWASDEE의 표지 그림으로 나와 한 번 더 눈길을 끌게 된 그림으로 왓푸민 사원의 벽화를 이야기 할 때 그 대표적인 그림으로 인정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태국 내에서도 손에 꼽히는 벽화중의 벽화라 할 만 하다.

이 그림은 거의 실물 크기로 그려져 있는데 일설에 의하면 이 벽화를 그린 화공이 자신과 사랑하는 자신의 연인을 묘사한 것이라 하지만 확인된 것은 없다.

이 그림을 들여다보면 남자의 머리모양이 전체 그림 속 다른 남자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머리카락을 정수리쯤에서 하나로 말아 올려 묶은 것과 그 부분을 접은 천으로 다시 한 번 더 둘러 묶은 것은 영락없는 미안마식이다. 게다가 허리에 두른 천 역시 미안마식 무늬라고는 하지만 문신의 색이 붉은 색으로 묘사된 것은 타이야이족⁵⁾들이 좋아했던 것이다. 이는 이미 미안마와 타이야이 그리고 란나의 문화적

⁵⁾ 혹은 산족이라 한다. 산족은 동남아시아의 타이계 민족 집단이다. 산족은 주로 미얀마의 산 주에 살지만, 일부는 만달레이, 카친, 카인, 중국과 타이의 접경 지역에도 산다. 비록 신뢰할만한 인구 조사는 1935년 이래로 행해진 적이 없지만 산족의 수는 약 600만 명으로 추정된다. 산 주의 수도는 인구 약 15만 명의 작은 도시인 타웅지이다. 다른 주요 도시로는 시바우, 라시오, 쟁통, 타치렉이 있다. <http://th.wikipedia.org/wiki/%E0%B9%84%E0%B8%97%E0%B9%83%E0%B8%AB%E0%B8%8D%E0%B9%88>

교류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벽화를 그렸던 화공이 타이야이족이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림 12>
두 남녀의 대화
©M_Elephant

그리고 여자의 경우도 복색으로 보아 신분이 꽤 높은 여성으로 보인다. 이는 여성의 장신구에서 그대로 드러나는데 웬지 남자와는 격이 맞아 보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남자가 다정스럽게 여자의 어깨에 올린 왼손과 무엇인가 은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 가리고 있는 오른손, 우아한 미소를 띤 여자의 눈길에서 서로에 대한 감정을 엿볼 수 있다.

도대체 두 남녀는 무슨 말을 속삭이고 있는 중이었을까?

VI. 그들이 사는 세상

서쪽의 벽에 그려진 벽화는 대부분 이 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묘사하고 있다. 전체를 보아도 좋고 하나씩 떼어내어 세밀하게 이야기를 만들어 보아도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상상하게 만든다.

이 벽화 속에는 베틀에 앉은 여자와 담배를 피우며 가르쳐 주고 있는 여자, 동성애를 연상 시키는 야릇한 두 남자, 숨어서 연애하는 장면을 훑쳐보고 있는 아이들, 한창 놀이에 빠져 있는 두 사내아이와 그것을 보고 있는 한 무리의 아이들, 물을 지고 걷는 두 모자, 울면서 어디론가 가고 있는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의 복색이 부둣가에서 홀로 떨어져 있는 여자와 동일하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일반 여성들은 상의를 입지 않고 생활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성적인 표현이 대체로 자유로웠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3>
서민들의 삶
©watkadarin.com

그리고 이러한 벽화 속에는 당시 사람들이 거주하였던 가옥의 구조와 형태를 쉽게 알 수 있기도 하다. 전통적인 란나 양식은 물론이고 서양과 중국의 영향을 받은 모습도 눈에 띈다. 일반 서민의 가옥과 신분이 있는 사람들의 가옥을 비교해 볼 수 있으며 각각의 구조가 비교적 자세히 묘사되어 있기도 하다.



<그림 14>
벽화 속 가옥들
©M_Elephant

태국과 라오스를 연결해 주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난의 역할에 어울리게 외국인들의 모습이 다양하게 그려져 있는 것은 당시 난에 거주하거나 교역을 하였던 외국인들의 신분과 직업도 알아 볼 수 있는 중요한 사료가 된다.

그 외에도 각종 동물들을 등장시켜 때로는 직접적인 묘사로 또 때로는 희화화하여 묘사하기도 하여 그 시대의 유머를 느끼게 해주기도 한다.

처음 왓푸민 사원에서 벽화를 만났을 때의 감동을 잊지 못한다. 온통 붉은색과 푸른색의 느낌이 강하게 들었던 벽화는 하루를 꼬박 그림 하나하나를 살피게 하고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란나에 관심을 가지고 본격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지금은 단순히 좋은 벽화를 하나 만났다는 생각보다는 이 벽화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진실에 주목하게 된다. 기존에 이미 연구되어 있는 몇 편의 글들을 종합해 보면 난과 주변 지역의 교류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구체적인 정

황이 드러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또한 벽화 속의 많은 종족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난에 정착하거나 교류하게 되었는지도 관심을 가지고 밝혀 볼 문제이다. 벽화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역사적인 사실은 물론이고 란나 지역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그려지는 그림들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이 글은 단지 왓푸민 사원의 벽화 연구를 하기위한 기초자료를 수집 과정에서 알게 된 몇 가지 부분을 소개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한다. 나머지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논문의 형태로 다시 발표하게 될 것이다.

